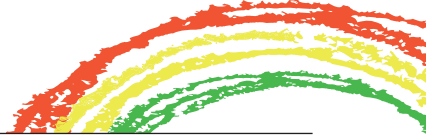


소아암 아이들의

# 선샤인 프렌즈



## 내가 기억하는 한빛

- 04 손선영 강남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코디네이터  
- “우리의 열정이 작은 씨앗이 되어”

## Good Morning Special 15th

### <소아암NGO한빛 설립 15주년 기념 특집>

- 06 소아암가족과 함께 한 15년의 동행  
08 열 다섯해, 그 아름다운 기록  
10 꿈을 꾸는 스케치북 전시회 “꿈과 희망 그리고 응원과 축하”

## Good Morning Family Event

- 12 미니운동회 “온라인 미니운동회 For You”  
14 여름캠프 “우리 가족의 일상에 찾아온 특별한 하루”  
16 제2회 그림페스티벌 “꿈을 꾸는 스케치북”  
18 송년잔치 “지금은 보이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 Good Morning Sunshine Friends

- 20 박수영후원자 “나눔이란 기쁨을 주고 받는 것”  
22 천사유치원 “힘내자! 내 친구들아!”  
24 권용식후원자 “소아암 친구를 응원하는 방법”  
26 이삭희 “마음으로 모아진 이삭희의 따뜻한 나눔”  
28 늘해랑프로젝트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탄생한 굿즈”  
30 예림디자인고등학교 “디자인으로 나눔을 실천하다”  
32 한국오노약품 “생일을 축하하는 특별한 방법”  
33 정규식후원자 “도울 수 있어 감사한 마음”  
34 KLPGA “특별한 겨울 선물”  
35 354-A지구 서울어니스트 라이온스클럽 “100년이 넘는 나눔의 열정”

## Good Morning My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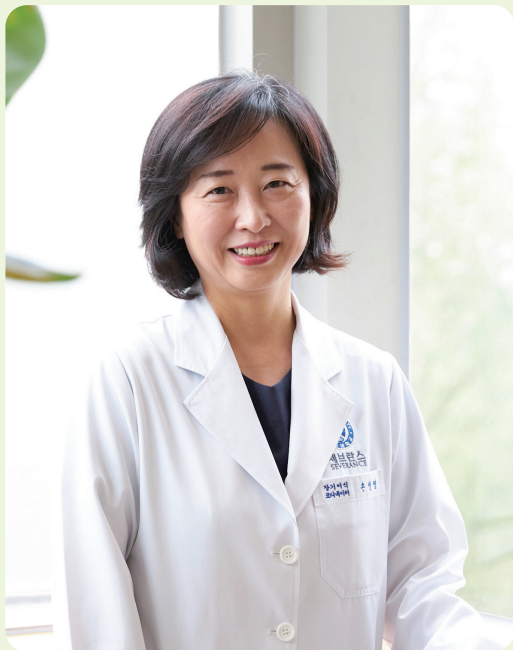
- 36 의료진이야기(간원기교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의미있는 시간”  
38 치료비 지원 후기 “엄마, 우리 너무 걱정말아요!”  
40 하우스 이용자 후기 “또 하나의 집 한빛 사랑 하우스”

## Good Morning Hanbit

- 42 2022 한빛 NEWS  
44 2022 후원 NEWS  
48 2022 결산현황  
49 2022 후원자 명단  
50 2022 하우스 이용현황, 물품후원내역  
52 15주년 축하인사  
63 15주년 축하 그림 챌린지  
64 후원안내 및 모집  
65 정기후원(CMS) 신청서  
66 포토에세이  
67 개인정보변경 및 이용신청안내

## 우리의 열정이

## 작은 씨앗이 되어



저는 소아암NGO한빛이 만들어지기 전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자원봉사로 함께하였던 손선영 간호사로 현재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진행된 소아암NGO한빛 설립 15주년 기념식에 초대를 받고 너무 오래전에 일했던 저인데도 기억하고 초대해 주셔서 얼떨떨하면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도착해서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현재까지의 감동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어서 깊은 감사의 마음과 이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었습니다.

저는 1996년~1997년까지 세브란스병원 소아과 병동에서 소아과 간호사로 일했었고, 이 후에는 적십자간호대학에서 아동간호학 조교로 지내었습니다. 조교로 지내면서도 소아과에서 만났던 소아암 아이들과 그 가족이 계속해서 눈에 밟혔기 때문에 결국 봉사를 하고 싶다는 열망을 마음에 품고 1998년 어느 날 무작정 세브란스병

원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 우연히 같이 일했던 혈액종양파트 소아과 박대영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는 그분의 길을 막아 서고 다짜고짜 제가 일했던 병동에서 소아암 환자를 위해 당장 봉사를 시작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때마침 소아과에 연수에서 다녀오신 교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안그래도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아암 아이들을 위한 봉사는 제가 너무나도 원하던 바였기에 그 길로 바로 교수실로 찾아갔고, 그렇게 만나뵈었던 분이 유철주 교수님이셨습니다. 유철주 교수님은 정말 소아암 환자와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준비 중이셨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던 차에 제가 느닷없이 찾아와 돕겠다고 하자 계획하였던 많은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날로 한빛의 시작에 바로 투입이 되어 부모모임, 생일잔치, 소식지제작, 송년회, 여름캠프 그리고 소아암 홈페이지 제작 등 처음 시작에 교수님의 손발이 되

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훌륭한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을 만나면서 함께 기쁨의 마음과 열정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소식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 유철주 교수님 지인분께서 운영하는 을지로의 인쇄소에 직접 찾아가서 한빛사랑회 로고를 새롭게 만들어 예쁘게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인쇄업자를 만나서 인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식지 제작을 시작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더운 날씨에 굳이 인쇄소까지 찾아갔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하나하나에도 세심하게 노력하셨던 유철주 교수님의 열정이 새삼 더 크게 감동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일은 아무래도 제1회 소아암캠프입니다. 캠프가 필요했지만 전문적인 인력의 지원이 부족했던 상황에 유철주 교수님과 소아암 환자 가족의 바람이 모여져 무작정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저를 비롯해 유철주 교수님이 직접 캠프 예정지로 차를 몰고 현장 답사를 가서 발품 팔아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캠프 프로그램은 소아당뇨캠프에 참여했던 저의 경험과 소아정신 간호사 김수미 선생님과 의기투합하여 무모하게 기획을 하였고, 식사, 간식 등의 제반사항은 한빛사랑회 정향숙 회장님 외 임원진께서 수고해 주셔서 소아암 21가족과 의료진 포함 89명이 참여한 첫번째 캠프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 의료진과 부모님들이 진지하게 대화하던 모습만으로도 용감한 감행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첫 캠프의 경험으로 우리 캠프에서 의료진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부모님들간의 대화와 힐링시간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다음 캠프 때마다 기획 시에 참고하여 점점 캠프 프로그램이 매 해를 거듭하며 풍성하게 진화해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도 오래된 우리의 열정을 쏟아내었던 과거가 작은 씨앗이 되어 지금의 이런 큰 나무의 NGO 단체가 되어 많은 아이들과 가족에게 든든한 지지자원이 되고 있다니, 정말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소아암NGO한빛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며 더 많은 소아암 환자들과 가족들의 든든한 벗이 되어주기를 힘껏 응원해 봅니다.

소아암NGO한빛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코디네이터

손선영



설립 15주년  
기념식

# 소아암가족과 함께 한 15년의 동행

2008년은 소아암NGO한빛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2004년부터 소아암가족을 위해 운영하던 한빛쉼터(현 한빛하우스)를 통해 더 많은 일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점사업으로 4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 “소아암 및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쉼터 운영사업”
- “암 치료 환자들을 위한 놀이치료, 음악치료사업”
- “학업부진 환자들을 위한 학업보충 지원사업”

“개별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현재는 여기에 소아암가족의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한 정서지원사업(신년회, 운동회, 여름캠프, 송년잔치 등)도 추가 되어 현재까지 소아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든든한 친구가 되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빛사랑하우스가 생겨났을 당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열의와 노력, 땀방울과 기도 그리고 후원으로 인해 이곳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과 소아암환자 부모님 자조모임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진 쉼터가 과연 얼마나 오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지 많은 사람들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함께 하기로 마음먹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기도가 이어졌고, 그 결과 2022년이 된 현재까지도 쉼터는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한 곳이 더 늘어나 2곳이 소아암가족들의 집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탄탄한 미래를 다짐하고자 4월 15일에 첫 번째 기념식을 두 번째 하우스인 사랑하우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곳에는 초창기의 하우스가 생겨나는데 큰 힘을 보태주었던 감사한 분들을 초청하여 그동안의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생일파티처럼 케이크에 초를 붙이고 감사영상을 함께 공유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즐거운 식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 오랫동안 후원자이자 봉사자가 되어 주신 분들, 의료진으로서 함께 출발에 힘을 보태었던 분들, 소아암치료 후 완치된 분들, 소아암을 치료하는 의료진분들과, 소아암NGO한빛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시는 이사님들을 모시고 15주년의 의미 있는 해를 다시 함께 나누는 공식 기념식을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김순전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빛의 시작과 지나온 길, 그리고 도달하게 된 현재까지의 여정을 알고 있는 분들이었기에 기념식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빛은 작은 씨앗으로 출발하였지만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나 튼실한 과일을 맺는 나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신 수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 후원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빛이 변함없이 소아암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며 늘 그 자리를 지키는 한빛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주년, 30주년에는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빛을 힘껏 지키고 가꾸겠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속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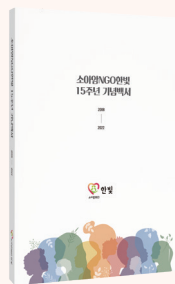
15주년 특집 2

15주년  
기념사업

# 열 다섯해, 그 아름다운 기록



한빛이 걸어온 지난 시간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소아암 가족들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2,400명이 넘는 소아암 가족에게 집이 되어 감싸안아 주었고, 이 곳을 지키기 위해 수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헌신, 그리고 시간으로 지켜주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현재도 배우며 자라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지난 시간은 그저 지나간 과거가 아닌 한빛이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 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나온 그 시간을 고스란히 기억하기 위해 15년의 시간을 담은 기념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요청드려 인터뷰를 하고, 과거의 자료를 모두 꺼내어 정리하며 글을 다듬어 갔습니다. 기념백서에 어떤 내용을 기록할지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작은 단체인 한빛이 지금까지 탄탄하게 본래의 초심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한빛을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꼭 들어차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역사를 담아낸 소아암 NGO한빛 15주년 기념백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15년간의 긴 시간을 빼곡이 정리한 것이 백서라면 이를 보고, 들으며, 감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은 기념영상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활동,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모습을 10여분의 영상을 통해 완성하여 이제 우리의 시간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언제든지 꺼내어 볼 수 있는 현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주년을 맞아 외부로부터 축하와 칭찬 그리고



인정 또한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들의 지나온 길을 누구에게도 자랑하거나 널리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담담히 나아갔을 뿐인데 감사하게도 제17회 연세사회봉사상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제11회 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 멘토링부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묵묵히 소아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자 그 길을 걸었을 뿐인데도 세상이 우리를 알아봐주고 인정해 주며 그동안의 걸어온 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또한 15주년의 감사의 의미를 깊게 새기고자 기념 굿즈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과 그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우선 15주년 축하를 주제로 한 소아암환자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15주년 축하 인사 챌린지도 진행하며 축하와 감사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작품들을 토대로 예뼌디자인고등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기념달력과 볼펜, 그림통과 마우스패드, 타포린백 등을 만들어 후원자분들과 소아암 가족들, 그리고 한빛을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축하하였습니다.

15주년을 기념하여 연말 이벤트로 '시간을 담다'와 함께 비대면 캐리커처도 진행하였습니다. 캐리커처를 희망하는 가족들의 사진을 보며 그림을 그리고 우편을 통해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총40가족이 참여하였습니다. '시간을 담다'는 매년 소아암 환자를 위한 재능기부로 캐리커처에 동참해 주고 계신데



이번 15주년을 맞이하여 "연세세브란스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가치있는 행사를 마련해주신 한빛에게 감사드리며 15주년 또한 축하드립니다." 라는 축하 인사와 함께 "작품을 받으실 이들에게 기쁨과 건강한 웃음이 전달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되도록 정성답아 작업하였습니다.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모든 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라는 격려의 메시지도 남겨 주셨습니다. 캐리커처에 참여 해주신 가족분들에게 이번 이벤트가 소중한 추억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시간을 담다의 이수연작가님과 여러 작가 지망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16일. 소아암NGO한빛 설립 15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여 소아암NGO한빛의 설립목적을 맞추는 퀴즈와 15주년을 축하하는 블로그 댓글 이벤트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참여자분들이 남겨주신 "늘 가족 같은 소아암NGO한빛!! 20년, 30년, 그 후에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에 힘입어 소아암 NGO한빛 역시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 곁에서 언제까지나 힘이 되어드리며 함께 하겠습니다.

1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기억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은 2022년의 큰 수확입니다. 앞으로 있을 20주년, 30주년에든 변함없는 모습으로 소아암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한빛을 후원하고 응원하는 분들에게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꿈과 희망 그리고 응원과 축하”

## <오프라인 전시회>

- 을지로 아뜨리에 갤러리 : 8/2(화) - 8/11(목)
- 연세암병원 126병동 : 9/30(금) - 10/14(금)
-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서부지부 : 10/17(월) - 10/31(월)

## <온라인 전시회>

- 전시기간 : 6/30(목)-7/29(금)
- 관람주소 : <https://art.onthewall.io/0EH3CrOvCyCIIEk6n5Ve>

‘꿈을 꾸는 스케치북’ 전시회는 2021년과 2022년에 진행했던 알록달록 그림페스티벌 작품과 2022년 축하해요 켈린지 (소아암NGO한빛 15주년 기념) 참여작, 총 39점으로 개최 되었습니다.

<꿈과 희망 그리고 응원과 축하> 라는 주제로 진행된 전시회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 역사내 아뜨리에 갤러리, 연세암병원 126병동,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서부지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을 감상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미소가 전달 되었기를 바라며, 전시회에 함께 해준 31명의 소아암 작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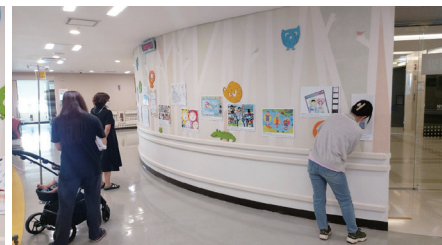
일상의 삶들이 점점 더 빠빠지고 숨가쁜 일들에 지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희망이 담긴 아름다운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정성어린 작품들이 계속 우리 사회 곳곳에 또 다른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메세지로 계속 전달 되어 지길 바라겠습니다.



## <꿈을 꾸는 스케치북 전시회 관람 후기>

- 아이도 본인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으니 너무 좋아하고 저도 왠지 가슴이 뭉클한게 작가 등단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덕분에 소중한 경험하고 왔습니다. 아이가 큰 자신감 얻고 왔어요!
- 친구들과 함께하며 소아암도 얘기하고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 너무 멋지게 전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와 가족들에게 영광스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 서울한복판의 지하철 역사내에서 소아암 NGO한빛 환자들의 그림전시회를 갖을 수 있었다니 자랑스럽고 마음 뿌듯합니다!
- 아름답고 사랑이 자라나는 꽃들이 만발하니 우리 친구들 웃는 얼굴과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 혼자만 그리고 보던 그림이, 다른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작품이 되는 멋진 경험을 하였어요. 근사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힘들 속에서도 아이들이 잘 이겨내주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요! 모두 함께 웃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 아이들의 그림에서 밝은 희망과 의지, 기쁨을 엿볼 수가 있어 좋네요.
- 이렇게 다함께 감동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도 되고, 아이들에게 또 다른 자신감도 심어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전시회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그림들 하나하나 살아 숨쉬고 힘이 있어서 보는 동안 힐링이 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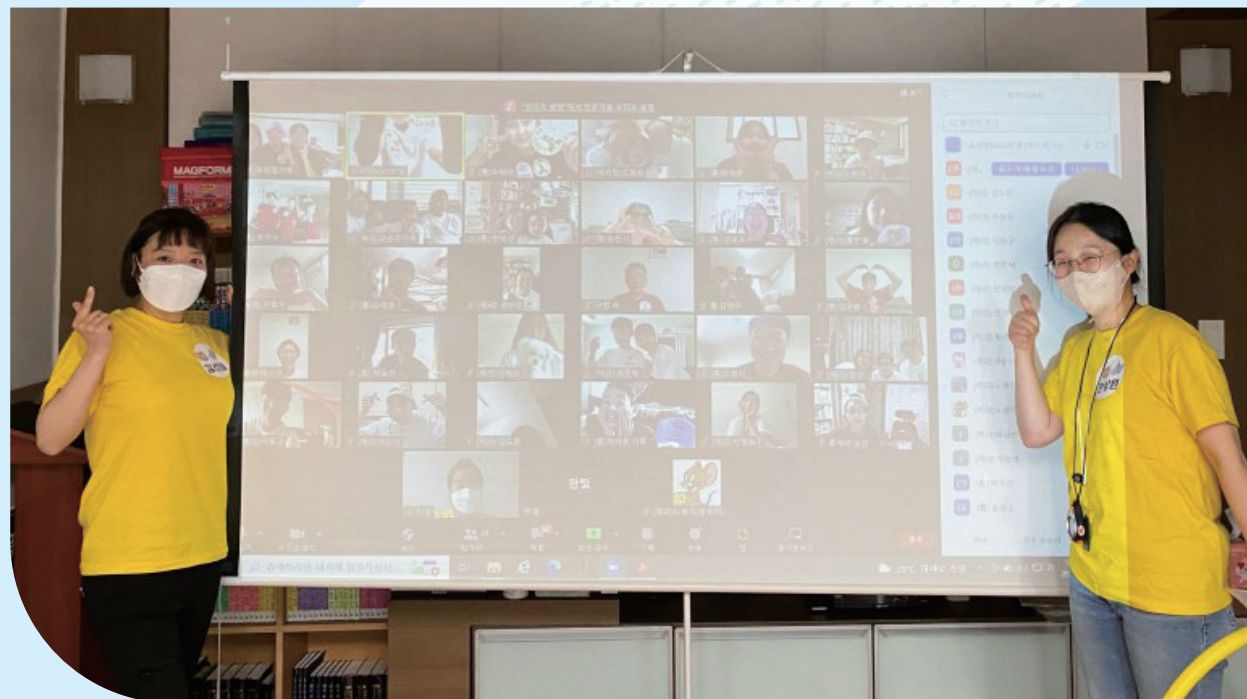




2022  
제7회 미니운동회

# " 온라인 미니운동회 For You "

- |      |   |
|------|---|
| 일시   | 2022.5.28.(토) 13:30-15:20   |
| 방법   | 온라인ZOOM(실시간)  |
| 인원   | 총70명<br>- 가족 49명(12가족)<br>- 스태프 21명(의료진6명, 기린아꿈드림11명, 소아암NGO한빛4명) |
| 프로그램 | - 팀대항 게임(지뢰찾기, 만보기, 훌라후프, 몸으로 말해요)<br>- 행운권 추첨, 선물이벤트 등           |



**온라인 미니 운동회 for YOU**

**"함께 할 수 있어 행복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온라인 미니운동회에 함께 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시는만큼  
멋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으로 만나드리겠습니다.  
항상 소아암NGO한빛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미니운동회 안내>**  
**2022. 5. 28. 토. 13:30~15:20**  
**온라인 ZOOM 접속**  
**팀별게임, 퀴즈, 행운권추첨 등**

\* 문의 : 소아암NGO한빛 카카오택셀 (1:1채팅창)

연세암병원 YONSEI CANCER CENTER  
소아암NGO한빛  
한빛사랑회

2022년 5월 28일은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아직은 대면만남이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좋은 날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할 수 없음이 아쉽긴 했지만 ZOOM으로 로그인하고 참여자의 수락 버튼을 누를 때마다의 그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근두근!

"안녕하세요!"

12가족과 완치자모임인 기린아와 꿈드림, 의료진들이 한 화면으로 한데 모여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팀별 구호를 외치고 팀대항 게임을 즐겼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목소리가 커지고 몸의 움직임도 다양해지며 실내의 열기는 매우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에 선물까지 더해지니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온라인 미니운동회!

참여하신 가족분들이 '오늘 하루 너무 행복했습니다.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는데요, 온라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즐거웠던 시간!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2023년은 꼭 운동장에서 반가운 만남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2 소아암  
온드림 어린이  
힐링캠프

우리 가족의 일상에 찾아온 특별한 하루  
“온라인 앤 오프라인”

<오프라인 활동>

- 형식1 서울(롯데호텔월드) 2022.8.28-9.11 중 가족별 원하는 일정 중 1박2일 날짜 선택. 소아암가족 11가족 39명 참석
- 형식2 부산(웨스틴조선부산) 2022.8.28.9.8 중 가족별 원하는 평일 1박2일 날짜 선택. 소아암가족 11가족 35명 참석
- 형식3 강원도 평창(켄싱턴호텔평창) 2022.8.29.-9.10 중 가족별 원하는 일정 중 1박2일 날짜 선택. 소아암가족 3가족 15명 참석
- 형식4 자유일정(서울, 속초, 여수) 2022.8.15.-9.4 패키지1-3을 갈 수 없는 가족의 신청을 받아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한 여행을 지원. 소아암가족 3가족 11명 참석

<온라인 활동>

공통프로그램으로 2022.9.17. 온라인 ZOOM을 통해 소아암가족 28가족 포함 의료진, 자원봉사자 총128명 참석, 프로그램(조별게임, 가족활동영상, 캠프슬로건, 포토제닉, 의료진과의 대화, 완치자와의 대화)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하는 소아암 온드림 어린이 힐링캠프는 소아암을 치료중인 아이들과 완치자, 가족, 의료진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만남의 형식이 바뀌게 되면서 캠프 역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힐링의 시간은 꼭 필요했기에 가족들이 선택한 1박2일 일정을 보내고 이후 온라인 단체프로그램 참여를 병행하는 형식의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온라인 앤 오프라인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2021년은 호텔과 풀빌라 중에서의 선택이었다면 이번 2022년은 접근성을 높이도록 지역의 선택권을 보다 넓혀서 서울, 부산, 강원도에서의 호텔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료일정 및 장소이동 제약으로 인해 정해진 캠프 기간 내, 지역으로의 참여가 어려운 가족을 위해 신청을 토대로 자유일정으로의 참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가족들간의 1박2일의 여행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행복 그 자체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여가족들과 의료진, 완치자 등 스텝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가족별 활동을 공유하고 게임을 즐기며 의료진과 완치자와의 의미 있는 대화를 하며 잊지 못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번 캠프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힐링되고 의미있었던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년에도 많은 가족분들과 멋진 시간으로 만나 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온드림 어린이 힐링캠프 소감 중에서>

- 이번 여행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바꿔주었어요. 1박2일 여정동안 너무 행복했고 감사하다는 마음 전합니다!!
- 힘든 시기에 즐거운 여행으로 힐링하고 아이도 소원성취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 서로에게 집중하며 가족 모두가 모인 시간이 너무 오랜만이라 행복했고 아이들이 그 시간을 소중하고 행복하게 생각해주어 감사하고 뜻깊었습니다.
- 함께 집중치료 받던 친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같이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게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 온라인 프로그램도 재밌고 유익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아이들에게 신경써주시는 마음이 온전하게 느껴졌습니다.
- 의료진과의 시간 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었고 앞으로 치료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는 힘을 얻었습니다.
- 완치자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희망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이도 꼭 완치가 되어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하루였습니다.





제2회 2022  
알록달록 그림페스티벌

# 꿈을 꾸는 스케치북

주제 꽃

접수기간 2022.4.1-4.30.

참여자 총22명

수상자 - 미취학부 : 최고상 제0진, 우수상(공동) 김0연 남0윤  
- 초등저학년부 : 최고상 김0화, 우수상 이0균  
- 초등고학년부 : 최고상(공동) 박0연, 이0  
- 중등부 : 최고상 김0화, 우수상 이0균  
- 고등부 : 최고상 이0빈, 우수상 김0준  
- 성인부 : 최고상 김0연, 우수상 유0선

알록달록 그림페스티벌 “꿈을꾸는 스케치북”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꽃’이라는 주제로 진행 되었습니다.

‘꽃’은 누군가에게는 축하, 누군가에게는 위로,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됩니다.

꽃은 우리들의 마음을 참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소아암NGO한빛 설립15주년을 축하해주는 의미를 담은 동시에 소아암 환자 및 완치자들이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임을, 그리고 나만의 향기를 머금고 또 그 향기가 이세상 속에 널리 퍼질 수 있기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번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아암NGO한빛이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늘 좋은 향기를 나누고픈 마음도 담았습니다.

그림페스티벌의 심사를 위해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의 이계영 관장님, 김수연 학예연구사님, 예림디자인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소아암NGO한빛 이사님, 연세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분들이 심사위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제의 적합성, 표현력, 창의성, 성실성’ 4항목의 심사기준으로, 각 연령부(미취학부, 초등저학년부, 초등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성인부)별로 참여자 이름은 공개 하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알록달록 그림페스티벌 “꿈을 꾸는 스케치북”에 참여하신 22명의 작가님들께 감사드리며, 축하의 인사를 다시 전합니다.

## <심사위원들의 이야기>

- ‘꽃’이라는 한가지 주제에서 저마다의 개성있는 표현으로 멋지게 그려내었습니다.
-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 자유롭고 창의적인 접근이 돋보였고 전반적으로 주제 표현력과 색감이 좋았습니다.
- 꽃에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희망과 의지, 긍정의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한 훌륭한 작품들이었으며 작품에 담긴 고마움, 즐거움, 아쉬움, 소망 등 여러 감정과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들처럼, 인생의 시간을 거쳐 피어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가득 담긴 그림들을 보게 되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 심사를 위해서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정하지만 긴 치료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그리고 이겨낸 참여자 한 명 한명이 모두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 올 한해, 소소하면서도 빛나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년에도 더 빛나는 한해가 되도록 가족 모두 응원할게요.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사를 전합니다.



제0진(6세)  
해바라기 친구 무지개와 햇님



김0화(초1)  
꽃밭



이0초(초5)  
떨어지는 벚꽃잎



박0연(초6)  
꽃들이 앞둥이



김0윤(중1)  
숨바꼭질



이0빈(고2)  
꽃들의 퍼포먼스



김0연(대학)  
함께 피워낸 꽃



김0연(6세)  
행복한 우리가족 체리동산 따요따요!



성0채(중2)  
자라나는 꽃들



남0윤(7세)  
못난이 꽃들의 변신



이0균(초1)  
불비맞고 쑥쑥자라자



김0준(고1)  
창 밖의 봄



유0선(대학3)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온라인 송년잔치

# “지금은 보이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주제	감사
진행일시	2022. 12. 18 (일) 14:00-16:00
진행방법	온라인 ZOOM (실시간)
참여가족	총18가족(60명)
참여인원	총81명(의료진 등 포함)
프로그램	소원 및 사연 나누기, 신청곡 감상, 인형극 관람, 크리스마스트리 꾸미기, 장기자랑, 산타선물, 행운권 추첨
후원	창천교회 병원봉사회
후원 및 재능기부	최세원+어린이 인형극 극단 <소리>
산타역할 자원봉사	기린아 김일진



채팅

~~ 함께 해서 너무 좋았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수신자모두에게

신 너무 즐거운 송년잔치  
송년잔치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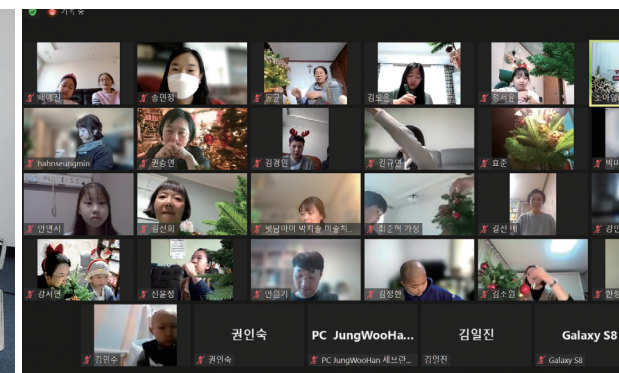
수신자모두에게

김 함께할수 있어 즐거운 시간  
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수신자모두에게

김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겨울, 그 중에서도 12월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겨울은 춥지만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12월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1년을 준비  
하며 기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2022년 12월 18일은 매서운 바람이 부는, 손이 얼어버릴 듯한 정말 추운 날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함께한 시간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올해로 3번째인 온라인 송년잔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응원하였고 아이들의  
멋진 장기자랑을 보며 웃음 지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미고 전구의 불을 밝혀보는 시간  
과 인형극 공연, 산타의 깜짝등장으로 더욱 행복한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라며,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  
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요.



## <송년잔치 후기 중에서>

- 교수님들, 간호사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선물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 오늘 행사를 보며 따뜻한 마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의료진 여러분들과 소아암NGO한빛 선생  
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연말, 휴일 오후에 귀한 자리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긴 시간 입원 중에 아이가 많이 심  
심해했는데 덕분에 즐겁고 뜻깊은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너무 의미있게 시청했습니다. 행복 가득한 연말 보내세요.
- 올 한해, 소소하면서도 빛나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년에도 더 빛나는 한해가 되  
도록 가족 모두 노력할게요.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사를 전합니다.



**박수영 후원자**  
(주)브레인씨앤씨 대표)

## 나눔이란 기쁨을 주고 받는 것



### 후원자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가족 모두가 한빛의 후원자인데 제가 대표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아버지를 시작으로 어머니, 동생과 함께 한빛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기쁘게도 얼마 전에는 남편도 한빛의 후원자가 되었어요.

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전에는 통신사에서 근무했었고, 지금은 가치소비와 관련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소아암 아이들을 후원하게 되었나요?

아버지께서 소아암NGO한빛의 정기 후원자셨어요. 신문에 나온 특집 기사를 통해 후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단체로 한빛을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지 않은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후원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2018년에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한빛에 꾸준히 후원을 해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돕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회사와 개인의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신 건 한빛뿐이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죠.

동생이 먼저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 후원하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가족이 함께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 나눔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눔은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나눔은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쁘게 해주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분명히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요.

그런 순간에 도움을 받았을 때의 안도감, 고마움. 그런 따뜻한 마음들은 서로 전해지니까요.



부모님께서 저와 동생에게 자주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니 늘 감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겐 기쁘게 손을 내어주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부모님과 주변 분들의 보살핌으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음에 진심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 후원자님께서 어떤 것을 나누거나 공유했을 때 가장 행복하셨나요?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하면 제가 직접 나눔의 현장에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물질적인 후원만 하고 있지만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봉사활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해외 입양을 앞둔 아기들을 보살피는 일도 하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농활을 가서 어르신들의 발 일을 돕고 장수사진을 찍어드리기도 했죠.

물론 체력적으로 힘이 드는 때도 있었지만 제가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잠시나마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큰 보람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가서 오히려 긍정적인 기운과 힘을 더 많이 얻어 오곤 했던 것 같네요.

### 소아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죠. 지금 힘든 투병 생활에도 분명 완치라는 끝이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보면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도 어느새 금방 흘러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소아암 아이들과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빛의 가족들이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환자들과 가족들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힘내자! 내 친구들아!



질문에 답을 해주는 시간도 갖고 후원증서를 수여하는 시간도 갖었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교수님께서 등장하자 아이들은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소아암에 관해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시간에는 너도나도 손을 들며 진지한 모습으로 소아암친구들에 대해 궁금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지나고 후원증서를 전달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맑고 깨끗한 아이들의 눈동자만큼 예쁜 마음을 칭찬하고 지금처럼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 수여를 하였습니다.

후원증서 수여식이 끝난 뒤에는 이제 아이들이 1년동안 갖고 닦은 재능을 뽑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준비한 노래, 율동, 우쿨렐레연주, 핸드벨공연을 함께 본 뒤에는 유치원의 원장님과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의 공연관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후원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2020년부터 이어온 귀중한 인연이 벌써 3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눔의 기쁨을 알고 실천해 본 우리 사랑스러운 천사유치원의 아이들이 지금처럼 예쁘고 반짝이는 마음을 품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힘껏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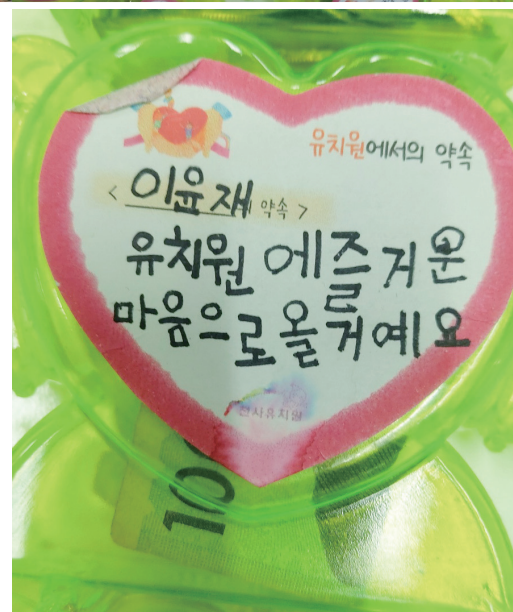
## “두근두근”

천사유치원 안에 아이들의 두근거림이 가득합니다.

2022년 겨울에도 어김없이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천사유치원의 천사어린이들이 나눔활동을 통해 소아암 친구들을 응원하고 후원하는 저금통 모으기를 하며 자신의 재능을 함께 나누는 나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각자의 저금통마다 유치원과 집에서 지킬 약속을 정해서 적어둔 뒤 약속을 지킬 때마다 용돈을 받아 그 용돈을 저금통에 모아온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소아암NGO한빛의 대표님인신 유철주 교수님께서 직접 유치원에 방문하여 아이들이 후원하는 소아암친구들이 힘껏 싸우고 있는 소아암이라는 질병에 관한





권용식 후원자  
(착한푸드 대표)

## 소아암 친구를 응원하는 방법

소아암환자를 응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치료비지원입니다.

소아암치료가 힘이 드는 이유 중 하나는 치료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최소 2년에서 길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될 수도 있기에 그 긴 시간 동안 필요한 치료비도 적지 않습니다. 한빛에서는 소아암가족을 위한 하우스운영, 정서지원사업, 학습연계 외에도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치료비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착한푸드를 운영중인 권용식 후원자님께서서는 지난 2021년부터 소아암 환자의 치료비 후원을 꾸준히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2021년에는 20,000,000원, 2022년에는 40,000,000원이라는 큰 금액을 후원하여 치료비로 인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선뜻 기부를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후원자님

께서 오래전부터 혈우병을 앓아오며 세브란스병원을 정기적으로 오게 되면서 그곳에서 작은 몸으로 환자복을 입은 채 링겔을 꽂고 지나다니는 소아암 아이들을 보게 되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것이 지금까지도 그 온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용식 후원자님을 통해 치료비가 필요했던 6명의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비지원을 받게 된 어머님들께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의 우리 가족의 상황을 이해하고,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응원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아암가족분들께 큰 위로가 되어주신 권용식 후원자님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진심이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회**  
(이대부속유치원  
학부모 봉사단체)

# 마음으로 모아진 이삭회의 따뜻한 나눔



2016년 첫 인연을 맺은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을 전액 후원하여 소아암환자들의 치료비를 후원한 이삭회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상황에서도 바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면서까지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4년만인 2022년에 오프라인 바자회를 열게 되었기에 그 뜻깊은 현장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랜만에 개최되는 오프라인 바자회인지라 현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해보다 기쁨과 설레임이 넘쳤고, 더욱 다양해진 물품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판매를 하는 이삭회 회원들과 구입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행복한 쇼핑을 통해 행복한 후원을 할 수 있기에 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이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판매 품목을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 정말 많은 업체들과 미팅을 하고, 제안서를 보내고, 때로는 판매할 제품을 직접 만들기도 하며 바자회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특히 음료팀에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함께 청귤청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진 나눔의 현장 덕분에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오히려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매년마다 이삭회의 후원으로 한해 평균 10명이 넘는 소아암환자들이 치료비지원을 통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바자회 수익금인 89,000,000원 전액을 후원해 주셔서 더욱 많은 환자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 정성을 통해 모아진 귀중한 후원금이 소아암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에게까지도 큰 응원이 되어 줄입니다.

이삭회의 바자회를 위해 애써주신 유혜진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  
늘해랑프로젝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봉사 동아리)

##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탄생한 굿즈



늘해랑은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이라는 뜻으로 소아암 환자들과 나란히 서서 이 긴 여정을 함께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늘해랑은 매년 세브란스 연세암병원의 소아암 환자들이 직접 그린 아기자기한 그림들을 소개하고, 소아암으로 치료받는 어린이들에게 수익금을 기부하는 동시에 미소를 선물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늘해랑’은 2020년과 2021년 두 번의 펀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제작비와 배송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NGO한빛에 기부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소아암 환자들 중에서 10명의 작가님을 모집하여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은 그림을 굿즈로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올해는 “주변과 꿈의 세계에서 환자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한 이번에 소아암 환자 작가님들이 그려준 그림은 함께 놀고 싶고, 지내고 싶은 소망을 담은 친구이자, 모두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캐릭터를 그렸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소아암 환자 작가님들이 “나의 세계와 친구들을 타인과 공유하는 기쁨”과 동시에 스스로 타인에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한껏 느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완성된 굿즈는 총 13개로 키링 2종(천사와 악마고양이 세트), 텀블러 2종(무지개 사자, 도토리 다람쥐), 그림통 2종(호랑이, 웃음꽃), 핸드타월 2종(바구니 토끼, 새싹이), 포스트잇 2종(당근이&콜리, 토끼이&곰탱이&꿀순이&조개껍딱), 엽서3종(꽃길 카페 친구들 시리즈)입니다. 하나하나 우리 작가님들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캐릭터들로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지어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늘해랑 팀원들은 본과 공부로도 벅찬 상황속에서도 시간을 쪼개고 여러번 회의를 거듭하며, 수차례 수정을 거치는 열정을 통해 보다 완성도 있는 굿즈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번 굿즈도 정말 멋진 제품으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려준 소아암 환자 작가님들과 재능기부로 멋진 굿즈를 탄생시킨 늘해랑 팀원들, 그리고 이를 해피빈 펀딩에 오픈할 수 있도록 애쓴 소아암 NGO한빛과 펀딩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큰 도움을 주신 해피빈재단의 모든 분들과 기꺼이 굿즈를 구입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탄생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굿즈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 선보이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림디자인  
고등학교  
(서울 구로구)

# 디자인으로 나눔을 실천하다



예림디자인고등학교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디자인에 특성화되어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는 시각디자인과, 콘텐츠디자인과, 만화애니메이션과, 패션스타일리스트과 총 4개의 학과에서 디자인실력을 갈고 닦는 재능있는 고등학생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림디자인고등학교의 김종필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고자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MOU 체결 이후 본격적인 예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의 재능기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달력제작이었습니다.

2022년도는 소아암NGO한빛이 설립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각종 기념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기념굿즈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굿즈 제작의 디자인을 맡아준 것이 바로 예림디자인고등학교의 콘텐츠디자인과의 9명의 학생들과 육혜란부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십니다. 학교공부와 과제, 공모전 준비에도 바쁘지만 없는 시간을 쪼개고 방학기간에도 학교에 나와서 소아암 아



이들의 15주년 축하그림을 캐릭터화 하여 달력, 볼펜, 마우스패드, 그림통, 타포린백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여러명이 함께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였기에 회의도 많이 하고 디자인도 여러번 수정되며 몇 개월간의 시간 동안 모두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마우스패드는 학교에서 디자인 및 제작까지 지원해 주시어 후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우리 소아암NGO한빛의 이름이 적힌 귀한 굿즈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굿즈는 지난 시간동안 후원과 응원으로 한빛을 도와주신 분들께 선물로 드렸고, 앞으로도 곳곳에서 의미있게 사용될 것입니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수정과 재수정을 걸치면서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완성해준 예림디자인고등학교의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김종필 교장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능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멋진 예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의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힘껏 응원합니다.



아이  
1

한국오노약품  
공업주식회사

# 생일을 축하하는 특별한 방법



12월 11일은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의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회사가 탄생한 창립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날을 내부에서만 축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창립의 감사함을 회사밖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2019년에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이 올해 벌써 3번째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에는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활동들이 중지되었지만 2021년부터 다시 시작된 나눔은 올해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첫해에는 많은 직원분들께서 직접 하우스로 오셔서 벽화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산타할아버지가 되어 선물도 직접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후 2021년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후원을 통해 하우스에 필요한 전자제품들과 물품들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올해에도 직원분들의 방문이 어려웠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

할 수 있는 후원을 해주셨고 어떤 물품들이 필요한지 아이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연말 선물을 주고 싶어 많은 검색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직접 글씨를 써서 사용할 수 있는 DIY 무드등을 선택하였으며, 그 외에도 하우스에 필요한 물품들과 식자재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DIY 무드등을 너무 좋아하였는데, 크리스마스에도 병원과 하우스에서 지내야 하는 아이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소아암아이들과 한빛사랑하우스의 산타할아버지가 되어 감사한 선물을 전해 준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웃음 가득했던 직원분들과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아이  
2

정규식  
후원자  
((주)빅웨이즈 대표)

# 도울 수 있어 감사한 마음



어느 날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데 휴학중에 친구들과 힘을 합쳐 2021년 11월에 창업을 하여 현재 주식회사 빅웨이즈라는 회사를 운영중에 있는데 회사의 수익을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후원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하여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된다면 뜻깊을 것 같아 늘 돕고 싶다는 마음을 생각으로만 품고 있다 이제야 실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재능과 열정으로 이뤄낸 소중한 업적을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그렇게 정규식 후원자님을 만나게 되었고, 치료비지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후원금 전달식이 있던 날 밝은 얼굴의 정규식 후원자님을 만나게 되었고 시종일관 웃음으로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더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고 하는 모습에서 더욱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건강하고 밝은 모습의 후원자님을 보며 계속해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음에 덩달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우리 아이들이 더욱 힘을 내기를 함께 응원해 봅니다.



KLPGA  
(한국여자  
프로골프협회)

## 특별한 겨울 선물



대한민국 골프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선수들을 탄생시키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에서는 매년마다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소아암NGO한빛을 통해 소아암 아이들에게 특별한 겨울 선물을 주기 위해 찾아 오셨는데, 후원금과 함께 아이들에게 필요한 가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방은 병원에 있는 소아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외래로 진료를 보러 오는 아이들과 한빛사랑하루스에 머무는 아이들에게까지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소아암 아이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까지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양을 보내주셔서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연말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 감사한 선물을 직접 전달해 주신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김정태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골프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세계골프의 중심에 우뚝서는 그 날까지 우리 한빛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354-A지구  
서울어니스트  
라이온스클럽

## 100년이 넘는 나눔의 열정



여러분은 라이온스클럽이라는 이름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1917년 6월 7일에 “성공한 사람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라는 좌우명을 갖고 있던 멜빈 존스(Melvin Jones)에 의해 설립된 국제봉사단체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라이온스협회는 100년이 넘는 현재에는 전 세계 215개국이 동참하는 가장 큰 국제봉사협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1958년 미국인 사업가 오키프씨에 의해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후 1959년에 서울라이온스클럽이 정식 출범하며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일원이 된 후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봉사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한국 라이온스는 출범이후 지역별, 모임별로 여러 클럽으로 나뉘어져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22년 10월 31일 국제협회 기준 클럽 2,037개, 회원 74,427명이 활동 중인 탄탄한 봉사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세계를 누비는 대표 봉사협회로 여전히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여 덴탈 마스크 100,000장을 후원한 라이온스클럽은 354-A지구 서울어니스트 라이온스 클럽으로 소아암NGO한빛의 김지중이사님께서 활동하고 계시기에 이사님과과의 인연을 통해 소중한 마스크를 후원받게 되었습니다. 바쁜 중에도 한빛하루스에 방문하여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김지중이사님을 비롯한 열정적인 서울어니스트 라이온스 클럽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스크가 늘 필수품인 우리 소아암 아이들과 가족분들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교수  
(세브란스병원  
소아혈액종양과  
진료교수)

##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의미있는 시간



처음 소아암 환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은 전공의를 처음 시작했던 봄이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던 그 때, 새내기 의사라 그랬을까요? 제가 맡게 될 아픈 친구들은 제가 다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 지나친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제 그 모습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수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계속된 병의 진행으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던 친구였

습니다. ‘어떤 병이든 잘 치료해서 낮게 해줘야지’하는 마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플 때 진통제를 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 무력감에 참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였을까요? 마지막에 그 친구는 저에게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저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조금이라도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일까요? 지금도 그 의미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때부터 저는 제 자신이 고마움을 받을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제 머리 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아암 친구들이 잘 치료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때 덜 힘들 수 있을까, 내가 그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형제자매의 마음은 어떨까? 나중에 이 친구는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까, 이 친구가 치료받는 동안 어떤 꿈을 꾸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들 수 있는 시간을 소중한 기억으로 떠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제가 갖고 있는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단순히 의사와 소아암 환자, 의사와 보호자의 관계보다는,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한 생명을 대하는 마음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친구가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소중한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어떤 의사일까요?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의사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소아암치료를 받는 친구들이, 또 가족들이 이 시간을 그 누구보다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요. 당연히 저 혼자 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사 선

생님들뿐만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 코디 선생님, 약사 선생님, 완화의료 선생님, 병원 학교 선생님, 소아암NGO한빛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사회사업팀 선생님, 정신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룬 우리 팀이 소아암 친구들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또 의미 있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처음 진단이 되었거나, 혹은 치료 중인 친구들이 있다면 저와 저희 팀과 함께,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소아청소년암센터 Pediatric Oncology Center Детский и подростковый онкологический центр





송윤서 엄마

# 엄마, 우리너무걱정말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남자아이인 송윤서의 엄마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윤서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2020년 12월 29일에 아이가 장염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갔는데 염증 치수가 높고 배를 아파해서 CT를 찍었는데 왼쪽 콩팥에 큰 덩어리가 보인다고 급히 암센터 병원을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장염이겠거니 하고 갔는데 종양 일 수도 있다는 얘길 듣고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상상도 못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나 이쁘고 빛나는 아이에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침대에 누워있는 윤서를 봤는데 차마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윤서가 얘기했는데 엄마를 따로 부를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하더군요.

아침 일찍부터 병원을 예약하고 윤서에게 천천히 설명 해주며 같이 인터넷으로 병명을 찾아보면서 얘기하는데 긴장하고 혼자 겁먹었던 윤서가 괜찮을 거라며 “엄마. 우리 너무 걱정말아요” 하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주었습니다. 아이는 저보다 차분하게 이 일을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아직 본격적인 치료는 시작도 안 한 시점인데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윤서는 12살로 초등학교 6학년을 앞둔 겨울이었습니다.

여러 병원과 여러 과를 다니며 정신없어 하는 아이에게 1차 수술을 진행했던 병원의 교수님께서 윤서 눈을 보더니 “많이 놀랐지? 미안해 윤서야. 선생님들이 수술 얘기도 하고 치료하자는 얘기도 해서 윤서 많이 놀랐겠다. 놀라지 않게 잘 설명해 줄게. 들어 줄 수 있지?” 라며 놀라고 무서워하던 아이 마음을 다독여주었습니다. 계속 괜찮았던 윤서가 그제서야 껴이꺼이 평평 울더라고요.

종양의 크기를 봐서는 신경모세포일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다보니 수술을 급히 잡아주셨고 2021년 1월 5일에 첫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는 “윌름종양”으로 판명이 나서 항암을 해야 했기에 급히 세브란스로 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원과정에서 폐 CT를 찍었는데 2mm의 작은 결절. 그게 전이의 시작일 거란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수술 후 폐렴증세나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들었기에 지금도 수술 후 항암 생각만으로 막막한데 더는 아니겠지. 아닐거야라며 세브란스에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을 하면 괜찮을 거란 기대로 구토가 나고, 머리카락이 빠졌을 때도, 방사선을 했을때도 씹씹하게 이겨내고 있었지만 두번의 항암 후 폐와 간으로의 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발성 폐 전이로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항암 2기에서 4기로 되었고, 훨씬 독한 약들이 처방이 되며 치료의 기간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틸 수 있지만 아이의 체력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윤서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줘야할지 매 순간마다 고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그 시간을 그렇게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해외에 파견 근무 중이었는데 코로나로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도 없었기에 전화로만 윤서의 소식과 수술, 항암, 그리고 전이의 소식을 들으면서 매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4기의 치료시작으로 다발성 폐의 결절들이 사라지고, 간에 있는 것도 사라지면서 조혈모세포이식의 기회까지 주어져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남편도 드디어 귀국을 하게 되어 이제는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든 조혈모실에서 극한의 고통을 겪고 무사히 조혈모이식도 마치며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연말을 보냈습니다. 이젠 정말 웃을 일만 남았겠지 했는데 3개월 후 조혈모이식 후 첫 CT에서 다시 다발성 폐 전이가 보이면서 재발이라는 큰 절망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수록 더 힘을 내야하는데 나는 건디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윤서는 괜찮을까? 끝없는 걱정이 밀려들었습니다. 괜찮을리 없을텐데, 어떻게든 치료를 해야하는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재발 아이스항암과 방사선치료, 조혈모이식을 끝낸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진행된 항암은 몸에 무리가 됐고 회복이 더뎠습니다. 치료 할 때마다 토하고 힘들어서 누워있는 아이를 붙들고 항상 마지막 항암 날은 같이 울고, 또 같이 힘내보자고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였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반복되면 기대도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힘을 내야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제가 웃으면 윤서가 열은 미소라도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항암을 하며 8개월의 시간을 보낸 뒤에도 2달 반 동안은 혈소판 회복이 안되어 항암을 못하면서 저희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캠핑가고 싶어하는 윤서를 위해 캠핑은 못가지만 베란다를 캠핑장으로 꾸미고, 미니테크와 큰 빈백과 러그도 깔고 사발면들과 과자, 음료수까지 준비해서 베란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 앞 공원에서 하는 불꽃놀이도 보면서 새로운 요리들도 도전해서 먹어보고,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

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하고 다시 항암을 시작할 때 내성이 왔고 표적이 들어간 항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칠대로 지쳤을 때 한빛에서 치료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윤서가 학교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늘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커서 아픈 아이들을 위해 심리치료가 되고 싶다는 자기가 받은 만큼 도움을 주고 싶다는 애길 많이 해왔었습니다. 아픔을 견디고 이겨내고 있기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프기 전부터 여러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저희가 받게 되니 정말 감사하며 우리의 후원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감사함이 되었구나 하고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괜찮다고는 했지만 전에 비해서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모아둔 적금으로 충당하기에는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빛을 통한 이삭회의 도움으로 큰 고비를 같이 넘기고 치료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원망보다는 이 순간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하루가 오게 되더라고요.

슬프고 힘들다는 생각으로 지금을 괴롭히기보단 같이 있는 이 순간! 지금!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도 치료중인 많은 환자와 가족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 같이 힘내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의 그 날이 올 때 까지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요.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또 하나의 집 한빛사랑하우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살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투병중에 있는 시현이 엄마입니다.

작고 어린 몸으로 시작하게 된 항암치료는 옆에서 지켜보는 것조차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힘들고 너무나 고된 시간이었지만 아이는 그 작은 몸으로 꿋꿋이 버텨내주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며 오히려 저도 힘을 내고 함께 이겨낼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1차 항암이 끝나고 퇴원해 집으로 내려왔다가 외래 진료를 보고 다시 집으로 내려가는 고되고 반복된 일상이 이어졌는데 어느날 병원에 진료를 위해 왔던 아이가 열이 오르고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도저히 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입원을 할 수도 없고 근처 호텔에 가기도 거리상의 문제도 있어 망설이던 그때 병원에서 소아암환자와 가족들이 지낼 수 있는 쉼터가 있다며 한빛사랑하우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처럼 지방에서 치료를 위해 올라오는 환자를 위한 집으로 그곳에서라면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그날부터 당장 하우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갈 때마다 아이가 면역력이 약해 긴 시간 차로 이동하고 몇 번 갈아타면 힘들어했던 상황이라 하우스는 그 존재자체만으로도 우리 모녀에게 너무 감사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우스에서는 긴 시간 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데 지내면서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배려해주셨고 하우스를 관리해주는 선생님들과 권사님의 도움으로 너무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하는 동안 하우스에 머물면서 어느새 그곳은 저희들의 제2의 집이 되었습니다.

지내기도 너무 편하고 병원도 가까워서 급하게 병원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무리가 없어 마음이 너무 안심되었습니다. 주위에 편의시설도 많고, 쌀이라든지 필요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들도 바로바로 제공해주시고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것도 물어봐 주시면서 툭툭툭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소아암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소독도 하고 소독제라든지 위생용품도 항상 떨어지지 않게 준비가 되어있어 마음이 안심되고 늘 편안했습니다.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는 막막함과 두려움만 가득했는데 하우스에서 많은 다른 환자들의 엄마를 만나면서 큰 위로도 받았습니다. 또한 언제나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살피주시는 하우스의 선생님들과 권사님의 도움과 따뜻한 손길이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내서 완치가 되는 그 순간까지 지치지 않고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 한빛 NEWS



## 1. 소아암NGO한빛 설립 15주년 기념행사

2022년 4월 16일은 소아암NGO한빛이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지 15주년이 되는 날로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빛의 처음부터 현재까지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사랑하우스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2. 제17회 연세사회봉사상 수상

5월 14일(토)에 연대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연세대학교 창립 137주년 기념식에서 소아암NGO한빛이 제17회 연세사회봉사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3. 제11회 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 수상

정부에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나눔 실천자를 발굴 및 포상하기 위하여 진행된 제11회 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에서 희망멘토링분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4. 2022 온라인 미니운동회

5월 28일(토)에 소아암가족의 정서지원과 단합을 위해 진행하던 미니운동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게임 및 행운권추첨을 통해 가족들에게 기쁨의 추억을 선물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 5. 예림디자인고등학교 MOU체결

6월 10일(금)에 15주년 기념굿즈를 함께 작업하였던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측간의 보다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이 진행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 6. 소아암NGO한빛 15주년 기념 "축하해요" 챌린지

소아암NGO한빛의 설립 15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해요"챌린지를 4월 한 달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선물하고 싶은 꽃을 그리거나 축하 메시지를 적어서 인증사진을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에 접수하였는데 진심어린 축하인사에 감사드립니다.



## 7. 알록달록 그림 페스티벌 제2회 꿈을 꾸는 스케치북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꽃"을 주제로 한 그림을 접수하여 6개 부문 2명씩 총 13명에게 최종 시상을 하였습니다. 높은 실력과 예쁜 마음이 가득 담긴 작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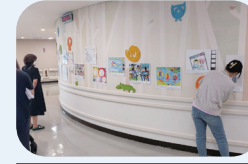
## 8. 제2회 그림 페스티벌 온라인 전시회

6월 30일~7월 29일에 걸쳐 그림페스티벌과 챌린지에 접수된 그림을 소개하는 온라인에 작품 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적 제약이 사라진 곳에서 더 많은 분들과 15주년을 기념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9. 현대자정몽구재단 2022 소아암가족 온드립 힐링캠프

현대자정몽구재단의 지원으로 28가족(총100명)의 소아암가족이 1박 2일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9월 17일(토)에는 다 함께 참석하는 온라인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진과의 대화, 완치자와의 대화 등 의미있는 시간도 함께 갖었습니다.



## 10. 1회~2회 그림페스티벌 연세암병원 전시회

연세암병원 12층 입원병동의 복도에 9월 30일(금)~10월 14일(금)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림페스티벌에 출품된 작품 전체를 전시하였습니다. 희망찬 메시지와 예쁜 그림을 통해 소통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11. 1회~2회 그림페스티벌 2호선 을지로4가역 전시회

1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작품과 축하의 인사를 함께 공유하고자 2호선 을지로4가 역사내에 있는 아트리에 갤러리에서 8월 2일(화)~8월 11일(목)까지 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12. 1회~2회 그림페스티벌 부산 전시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서부지점 1층 로비에 10월 17일(월)~10월 31일(월)까지 연세암병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작년과 올해 출품된 작품 전체를 전시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었는데 뜨거운 반응으로 열띤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 13. 늘해랑 프로젝트 해피빈 펀딩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된 늘해랑(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봉사동아리)의 굿즈프로젝트로 연세암병원 병원학교의 소아암환자 10명이 작가로 참여하여 키링, 스마트톡, 텀블러, 핸드타월, 엽서, 접착메모지를 굿즈로 제작한 뒤 해피빈재단 펀딩을 통한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NGO한빛에 후원하였습니다.



## 14. 2022 온라인 송년잔치

12월 18일(일)에 진행된 올해 송년잔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보이는 라디오"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유철주교수님께서 한상원 과장님과 함께 MC를 진행해 주셨는데, 유쾌하고 포근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15. 예림디자인고등학교 후원굿즈 전달식

12월 22일(목)에는 예림디자인고등학교의 학생들과 협업하여 제작한 굿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예림디자인고등학교에서 후원으로 마우스패드를 추가로 제작해서 선물해주셨습니다.



## 16. 15주년 기념사업 진행

설립 1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15주년 백서 제작, 기념영상 제작, 15주년기념 굿즈 제작, 캐리커처 이벤트, 퀴즈이벤트, 댓글이벤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과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 17. 소아암NGO한빛 설립 15주년 기념식

12월 28일(수) 소아암NGO한빛 설립 15주년의 해를 마감하는 기념식 행사를 연세대학교 더라운지 김순전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올 한 해동안 진행된 기념사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축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갖었습니다.



# 2022 후원 NEWS



## 1. 궁동복지관 마스크, 소독겔 등 물품후원

1월 6일을 시작으로 총 세차례에 걸쳐서 구로구에 위치한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소아암 가족을 위해 마스크, 텀블러, 소독겔, 손세정제, 시계, 폼클렌징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 2. 동일에프엔디&김시우 가족 두유 201박스 물품후원

1월 11일(화)에 동일에프엔디와 김시우 가족께서 소아암가족의 건강한 간식을 위하여 두유 201박스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 3. 2021년 연세의료원 교직원 성탄헌금 후원

1월 12일(수) 세브란스병원에서 지난 2021년 겨울에 진행된 임직원 성탄절 기념 예배의 헌금 5,294,100원을 소아암가족을 위한 후원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 4. 김성한후원자 쌀 30포대 후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김성한 후원자께서 1월 14일(금)에 20kg 쌀 20포대와 11월 17일(목)에 20kg 쌀 10포대를 하우스로 보내 후원해 주었습니다.



## 5. 코코스타 마스크세트 200개 후원

1월 27일(목)에 코코스타의 함정수대표님께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아암가족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마스크세트 200개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 6. 본아이에프 상품권 및 베이비죽 후원

2월 11일(금)에 본아이에프에서 소아암치료중인 환자와 가족을 위한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기 위한 3,000,000원의 상품권과 아기를 위한 베이비죽 100개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 7. 박성희 후원자 신발 60켤레 후원

4월 16일(토) 박성희후원자께서 하우스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위한 신발 60켤레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 8. 본아이에프 쌀 20포대 후원

4월 14일(목) 본아이에프에서는 2022년 한마음행복나눔지원사업을 통해 소아암가족을 위해 쌀 20kg 20포대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 9. 한국기술사회 과자 100박스 전달

4월 22일(금)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과자 100박스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소아암가족분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 10. 대흥설비주식회사 목우촌 추석 선물세트, 누룽지 물품후원 전달

5월 2일(월) 대흥설비주식회사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누룽지 50박스와 8월 31일(수)에는 추석을 맞아 목우촌선물세트 50박스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 11. 서울어니스트라이온스클럽 마스크 10만장 후원

5월 17일(화)에 354-A지구 서울어니스트 라이온스 클럽에서 소아암환자 및 가족을 위한 마스크 100,000장을 후원해주셔서, 한빛사랑하우스 및 병원에 입원중인 가족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 12. 권용식후원자 소아암환자 치료비 지원 후원금 전달

착한푸드 권용식대표님께서 2022년 한 해 동안 5월 30일(월)과 11월 14일(월) 두 차례에 걸쳐서 소아암치료로 고통받는 환자를 돕고자 치료비 지원비로 40,000,000원을 후원하였습니다.



## 13. 세브란스신협협동조합 생활용품 후원

7월 25일(월)과 10월 7일(금)에 세브란스신협협동조합에서 후라이팬, 텀블러, 냄비 등 생활용품을 후원해주셔서 하우스의 식기들을 교체하고 필요한 물품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 14. 정규식후원자 소아암환자 치료비 지원 후원금 전달

7월 26일(화)에 정규식(연세대학교 재학/BIGWHALES 대표)후원자께서 동문들과 함께 창업을 하여 운영중인 회사의 수익금중 1,000,000원을 소아암환자 치료비를 위해 후원해 주셨습니다.



## 15. 더메리프로젝트 생활용품 후원

매년 겨울마다 한빛사랑하우스의 산타가 되어 하우스를 위한 생활용품을 후원해 주는 더메리프로젝트에서 8월 15일(월)과 12월 20일(화) 두 차례에 걸쳐 하우스로 직접 방문하여 후원물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 16. 정다희아버님 물티슈 5박스 후원

10월 13일(목) 정다희환자 가족께서 한빛사랑하우스와 병원에서 지내는 소아암가족을 위해 물티슈 5박스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 17. 이삭회 소아암환자 치료비 후원금 전달식

이삭회(이화여자부속유치원 어머니 봉사회)에서 10월 24일(월)에 4년만에 열린 대면 바자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수익금 89,000,000원 전액을 소아암환자 치료비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 18. 임주연후원자 소아암가족 지원 후원금 전달

10월 25일(화)에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연세기린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 중인 임주연 후원자께서 개원 1주년을 기념하고자 소아암가족을 돕기위한 10,00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 19. 한국문화재단 달빛기행 키트 42개 후원

11월 10일(목) 코로나와 소아암치료로 인해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소아암환자를 위해 한국문화재단에서 집 안에서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달빛기행 키트 42개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 20. MCKINSEY 임직원 선정 후원금 전달

11월 18일(금)에는 국제적인 리서치 회사인 MCKINSEY에서 임직원 추천으로 후원단체를 접수한 뒤 임직원 투표로 후원단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아암 NGO한빛이 선정되어 34,269,360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았습니다.



### 21. 김정민명창 지오앤위즈 건강식품, 화장품 세트 전달식

11월 28일(월)에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인 김정민 명창께서 소아암환자와 가족을 위해 7000만원 상당의 지오앤위즈 건강식품 200세트와 화장품세트 150개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 22. 이화인(이지83) 후원금 전달

11월 30일(수)에 양재동 천사유치원 장태욱 원장님께서 속해있는 EG83(2017 올해의 이화인)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아암 가족을 위해 1,000,000원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 23. 본아이에프 김장김치 15박스 후원

12월 9일(금) 본사랑 제9회 사랑의김장나눔을 통해 한빛사랑하루스에서 지내는 가족들을 위한 김장김치 15박스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 24. KLPGA 학생가방 후원물품 및 후원금 지원

12월 16일(금)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에서 자선기금 마련을 위한 제10회 E1 채리티 오픈 대회를 통해 400만원 상당의 학생용 보조가방과 1,000,000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25. 한국소아암재단 생활용품 및 장난감 후원

매년마다 소아암환자를 위해 큰 나눔을 실천하는 한국소아암재단에서는 휴지, 물티슈 등 생필품을 비롯하여 살균제, 쌀 등 후원물품을 6차례에 걸쳐서 한빛사랑하루스에 직접 가져다 주셨습니다.



### 26. 박수영,박수혜 후원자 후원

(주)브레인씨앤씨 박승원 대표님의 따님이셨던 박수영, 박수혜 후원자께서 아버님의 뒤를 이어 소아암환자를 돕는 후원자가 되어 2022년 네 차례에 걸쳐 17,000,000원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 27. 한국오노약품공업(주) 창립기념일 기념 후원금 전달

12월 9일(금)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창립기념일이라는 뜻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소아암환자를 돕고자 5,000,000원의 후원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 28. 5인의 미세스산타팀 생활용품 후원

12월 12일(월) 성탄절을 앞두고 5인의 미세스산타 후원팀에서 한빛사랑하루스에서 필요한 휴지, 식용유, 세제 등 생활용품들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 29. 한 살림 연희동 매장 쌀 후원

12월 21일(수)에는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한 살림 연희동 매장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모인 유기농 쌀 40여개를 소아암가족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후원해 주었습니다.



### 30. 2022 천사유치원 나눔행사 후원금 전달

12월 22일(목)에 2020년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된 양재동 천사유치원의 나눔행사를 통해 유치원생들이 모은 저금통과 선생님들의 후원이 더해져 2,107,080원을 소아암환자를 위해 후원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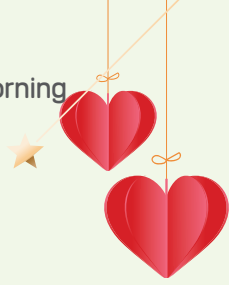


### 31. 지경선후원자 생활용품 후원

12월 27일(화) 강남에서 가우스수학학원을 운영중인 지경선원장님께서 재능기부를 통한 소아암환자 수학교육 외 한빛사랑하루스를 위한 후라이팬, 세제 등 생활용품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 1. 2022년 결산서

(2022.01.01~2022.12.31)

| 48

계정과목	결산액	계정과목	결산액
<b>세입</b>		<b>세출</b>	
1. 후원금 수입		1. 소아암 NGO 한빛 사무국 운영	
1) 정기후원		1) 인건비	
1-1) CMS후원	66,340,485	1-1) 급여 및 수당	102,888,055
1-2) 개인 계좌이체 후원	43,114,000	1-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7,808,380
1-3) 단체 계좌이체 후원	6,300,000	1-3) 사회보험부담금 및 지방세	14,199,460
<b>2-1) 정기후원 소계</b>	<b>115,754,485</b>	<b>1-1) 인건비 소계</b>	<b>124,895,895</b>
2) 특별후원		2) 운영비	
2-1) 하우스 이용자 후원	46,850,000	2-1) 차량관리 및 유지비	2,818,900
2-2) 해피빈	15,263,000	2-2) 물품구입비	4,358,971
<b>2-2) 특별후원 소계</b>	<b>62,113,000</b>	2-3) 여비교통비	666,900
3) 지정후원		2-4) 수용비 및 수수료 (우편택배,주차 등)	2,690,720
3-1) 치료비지원	130,000,000	2-5) 예비비	36,306,648
3-2) 진료상담 프로젝트	100,000,000	2-6) 기타 운영비	759,565
<b>2-3) 지정후원 소계</b>	<b>230,000,000</b>	<b>1-2) 운영비 소계</b>	<b>47,601,704</b>
4) 비지정후원(개인)		3) 홍보	4,997,932
4-1) 비지정 개인후원	49,346,460	4) 후원 개발 및 관리	3,599,400
4-2) 비지정 단체후원(기업,재단)	49,220,540	<b>소아암NGO한빛 사무국 운영 소계</b>	<b>181,094,931</b>
<b>2-4) 비지정후원(개인) 소계</b>	<b>98,567,000</b>	2. 한빛사랑하우스운영(소아암센터)	
<b>후원금 소계</b>	<b>506,434,485</b>	1) 한빛하우스(창천동)운영	
2. 자산 매도금액		1-1) 식자재 및 소모품 구입	27,261,912
1) 금융자산매도		1-2) 정수기렌탈요금	836,400
2) 유형자산매도		1-3) 가스요금	3,742,040
<b>자산 매도 소계</b>	<b>0</b>	1-4) 방역요금	1,440,000
3. 잡수입		1-5) 전기요금	2,832,330
1) 이자수입	389,118	1-6) 수도요금	947,860
2) 기타잡수입	4,377,960	1-7) 인터넷 및 TV요금	1,336,166
<b>잡수입 소계</b>	<b>4,767,078</b>	1-8) 시설개보수비	4,152,500
<b>세입합계</b>	<b>511,201,563</b>	1-9) 재산세	4,327,147
		<b>2-1) 한빛하우스(창천동)운영 소계</b>	<b>46,876,355</b>
		2) 사랑하우스(연희동)운영	
		2-1) 식자재 및 소모품 구입	6,303,211
		2-2) 정수기렌탈요금	477,600
		2-3) 가스요금	3,822,310
		2-4) 방역요금	1,272,000
		2-5) 전기요금	2,694,400
		2-6) 수도요금	931,750
		2-7) 인터넷 및 TV요금	725,576
		2-8) 시설개보수비	0
		2-9) 재산세	6,186,243
		<b>2-2) 사랑하우스(연희동)운영 소계</b>	<b>22,413,090</b>
		3) 현대벤처빌 운영	
		3-1) 관리비	2,381,280
		3-2)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	1,731,040
		3-3) 가스요금	291,820
		3-4) 인터넷 및 TV요금	429,380
		3-5) 시설개보수 및 관리비	50,000
		3-6) 재산세(부동산세 등)	269,400
		<b>2-3) 현대벤처빌 소계</b>	<b>5,152,920</b>
		<b>한빛사랑하우스운영 소계</b>	<b>74,442,365</b>
		3. 치료비지원사업	
		<b>치료비지원사업 소계</b>	<b>53,362,400</b>
		4. 자산구입금액	
		1) 금융자산매입	400,000,000
		2) 유형자산매입	0
		<b>자산구입금액 소계</b>	<b>400,000,000</b>
		5. 소아암환자지원사업	
		1) 완치자지원사업(기린아&꿈드림)	0
		2) 소아암가족지원행사	10,666,073
		<b>소아암환자지원사업 소계</b>	<b>10,666,073</b>
		6. 잡지출	
		<b>잡지출 소계</b>	<b>0</b>
		<b>세출합계</b>	<b>719,565,769</b>
<b>월(연) 자금수지(세입-세출)</b>		<b>-208,364,206</b>	
<b>전월(년)이월금</b>		<b>465,959,355</b>	
<b>차월(년)이월금</b>		<b>257,595,149</b>	

## 2. 후원회원

(2022년 1월~12월)



| 49

### 1. 정기후원회원

5천원	강미영, 강영린, 김윤영, 김은채, 김희은, 박정순, 배정임, 이선희, 이수진, 이희경, 조미영, 조은희, 한유영
1만원	강나영(이순애), 강보성(강성진), 구본미, 권수영, 권영준, 김경미, 김경민, 김경숙, 김두진, 김병천, 김선정, 김소라, 김영숙, 김유민, 김은경, 김재훈, 김중수, 김지선, 김진소, 김진아, 김춘희, 김해용, 김현이, 김현정, 김희진, 나수연, 도현순, 모명환, 모민희, 문숙희, 박경자, 박미나, 박선정, 박영란, 박은선, 박은재, 박정선, 박태선, 박현준, 방사무엘연상, 방인숙, 배길선, 백일영, 서진근, 석미영, 성성숙, 손유진, 송기원, 송미란, 송현주, 심소정, 심형준, 안상민, 양재승, 오미영, 우남철, 원호성, 유경화, 유기성, 유연숙, 유주영, 윤성현, 윤옥진, 이감우(이종업), 이광환, 이규현, 이다영, 이승환, 이영희, 이은우(이종업), 이은정, 이인숙, 이정순, 이종호, 이주현, 이철수, 인수진, 장수연, 정규성, 정서윤, 정행훈, 조근행, 조길수, 조미영, 조형희, 지승연, 최병숙, 최상민, 한경미, 현승준, 황인희, 황정원
2만원	강유미, 권민지, 권순호, 김규광, 김나원, 김라임, 김미희, 김선화, 김수현, 김영자, 김예나, 김예지나, 김왕배, 김인기, 김재실, 김지영, 김진희, 김현숙, 김혜경, 김혜양, 나윤경, 남유정, 노유원, 박은영, 박은아, 박현우, 박희욱, 배석진, 서연제(서정혁), 석윤희, 신현주, 양혜란, 유경아, 유기욱, 윤수한, 윤이송, 윤정애, 이동구, 이명순, 이배환, 이유미, 이윤선, 이지순, 이현빈, 임지선, 장미경, 장진희, 정인호, 조달남, 진정문, 최승관, 최영애, 최인경, 하미경, 한수영, 한윤혁, 한재원, 한정화, 한혜선, 현도은, 홍관욱, 홍영숙, 황경화, 황지율
3만원	김현진, 김진희, 고경민, 고애란, 국아령, 김광재(최은희), 김예준(김명희), 김주희, 김지윤, 김채운, 김홍익, 박건희, 박성희, 박승원, 박유선, 신동성, 신형주, 오원임, 유재덕, 이승순, 이은미, 이진희, 이재윤, 장현진, 주식회사 업집, 주형준, 주혜연, 최병철, 최수영, 한상원, 홍순명
5만원	신윤정, 강창무, 구인옥, 김은아, 김지혜, 김형기(김예준), 창천교회나오미선교회, 류인옥, 박민지, 박상민(박세진), 서현우, 송민정, 신희진, 용천신일가스, 이승현, 창천교회병원봉사회
10만원	김선희, 강명선, 고복희, 권승연, 권용식, 김영준, 산돌교회, 이승연, 이지은, 이지현, 장준영, 한승민
20만원	김미영, 이지은, 정만희
50만원	배명자, 함태현
25만원	배길선
100만원	유철주, 이은경

### 2. 일시후원회원

금액	후원자명	금액	후원자명
10,000	김혜민, 이혜영	1,000,000	강민주, 김민석, 박수혜, 이규현, 이화인(이지83), 정규식, 한유진
20,000	강해진, 고정현, 고희길(용천가스), 김류연, 김수경, 김시우, 김영지, 김정환, 김재영, 김채원, 김효준, 문경균, 박경필, 박승한, 박현석, 배서윤, 송영진, 송윤서, 양신영, 양지수, 오은찬, 오태민, 오회원, 윤옥진, 이동하, 이슬, 이시윤, 이은찬, 이효정, 장시은, 장하은, 장현지, 전우선, 정다희, 정예찬, 정지아, 정현근, 제예진, 최경숙(김선중), 홍다남	1,050,000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30,000	권민지, 이진, 최진서	1,500,000	박인수
40,000	김하람, 박진영, 오예성	2,000,000	김현이, 장준영
50,000	남윤성, 류범진, 이경선, 김용숙	2,107,080	천사유치원
100,000	김서연, 손선영, 송민선(박유진), 이다근, 박영균, 이영준, 황지율	4,000,000	현금천사
200,000	변병숙	5,000,000	임명,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216,460	이승환	5,294,100	연세의료원
500,000	김진소(김광범), 정해순, 창천교회병원봉사회, 홍창화	10,000,000	임주연
		16,000,000	박수영
		34,269,360	MCKINSEY
		40,000,000	권용식(착한푸드)
		89,000,000	이삭희
		100,000,000	이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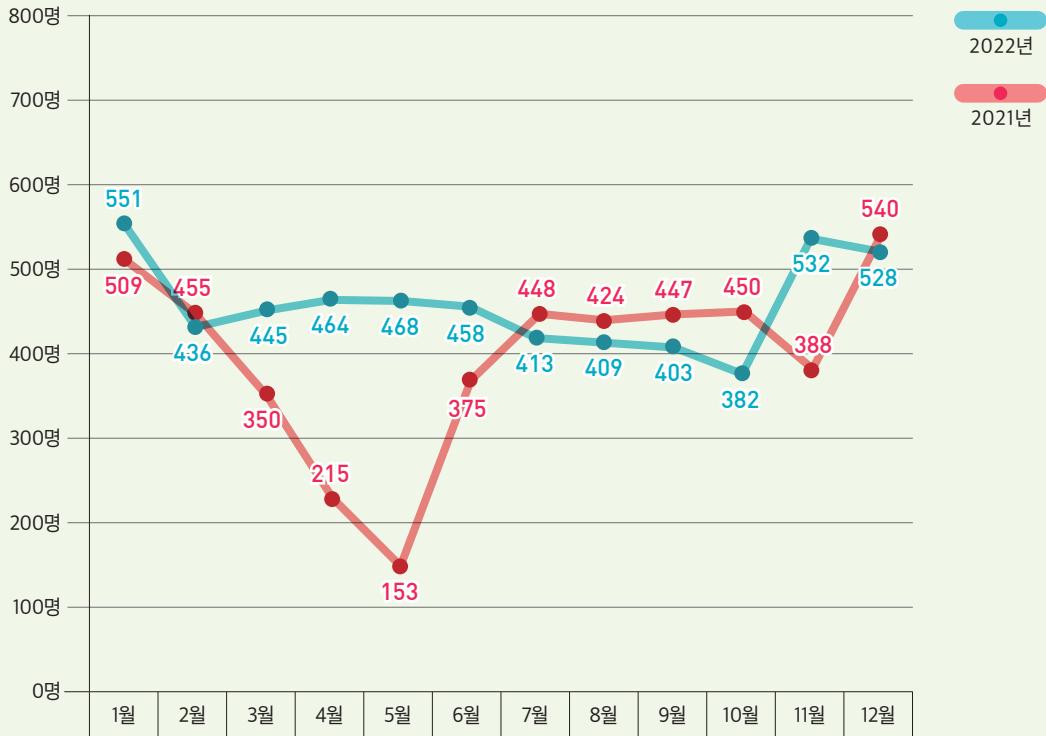


### 3. 한빛사랑하우스 이용현황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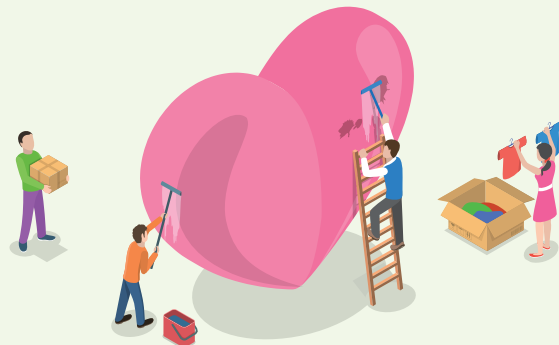
#### 1. 2022년 이용현황 (1월~12월) (단위:일별 실인원 합계)

##### ① 이용현황표



단위 : 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환자	274	218	222	232	228	229	205	203	198	184	227	219	2,639
보호자	277	218	223	232	240	214	208	206	205	198	305	309	2,835
합계	551	436	445	464	468	458	413	409	403	382	532	528	5,489



| 51



#### 2. 후원물품내역

1월	강나경(한라봉 2box), 강성수(한라봉 1box), 공동복지관(एको키트 10개, KF80마스크대형 3,500개), 김성한(쌀20kg 20포), 동일에프엔디(김시우왓/삼육두유B 201BOX), 유철주(굴비 1상자), 한국기술사회 한선미(아동도서 175권), 한국기술사회 (김치50kg, 쌀50kg), 한국소아암재단(쌀40kg, 휴지, 장난감, 매트 외 22종), 코코스타(마스크세트 200개)
2월	본죽(베이비이유식 100개, 본상품권 300장(5,000원권)), 소아암재단(쌀 40kg), 양혜원(천혜향1box)
3월	소아암재단(쌀 40kg, 휴지,베게,장난감 등, 메디옥스 140개), 강나경(한라봉 1box), 개인후원자(원목 교구 16종), 유신형(마스크 223장)
4월	소아암재단(쌀 40kg, 휴지,기저귀,넙비 등 43종 ), 박성희(아동유아 운동회 3box), 공동복지관(소독겔60개,마스크2box,손세정제30,box), 한국기술사회(과자 100box), 이혁(굴취 1box)
5월	소아암재단(쌀 40kg, 살균소독제 160개,인형 30개), 서울어니스트클럽(일반마스크 10만장) 대흥설비주식회사(이승현/누룽지 50box)
6월	소아암재단(쌀 40kg, 휴지,키친타올 등 생필품), 황한별(재활용봉투,일회용봉투), 공동복지관(시계30개,폼클렌징70개,마스크초소형10개씩 60set,소형10개씩 60set)
7월	소아암재단(쌀40kg,메디록스10box,이마트물품(후원물품대장참조), 이혁(옥수수100개), 공동복지관(마스크120세트, 클렌징폼70개, 손목시계30개), 한국기술사회(소독약1box, 소독겔1box, 체온계세트1), 이예림(복숭아2box), 신희(넙비,그릇세트 외 27종)
8월	소아암재단(쌀40kg), 더메리프로젝트(주방세제8, 세탁세제8,피죤,키친타올5롤), 이은찬(멸치1box), 고정현(백향청2통), 대흥설비(목우촌선물세트(추석선물) 50box)
9월	소아암재단(쌀40kg), 이다근(사과1box)
10월	소아암재단(쌀40kg), 김성현(쌀20kg), 김혜연(쌀40kg), 신희(멸티커 등 34종), 정다희아빠님(물티슈 100개)
11월	소아암재단(쌀40kg), 황한별(사과1Box), 고정현(굴2Box), 기술사회(김치3Box), 현승윤(굴5Box), 김성한(쌀20kg 10포), 최세원(인형극키트 100set), 한국문화재단(달빛기행 키트 42개)
12월	소아암재단(쌀40kg), 한국기술사회(마스크 4,000장), 본죽(김치15box), KLPGA(보조가방 250개), 더메리프로젝트(퍼실, 포도씨유 등 15종), 한국기술사회 서영진(쌀100kg), 지경선(포도씨유 3병, 주방세제4, 세탁세제2, 후라이팬2, 욕1, 핸드워시2통(리필4리터)





# 15주년 축하인사

| 52

53 |



**이규현**

前세브란스병원 원목실 목사 /  
소아암NGO한빛 이사

15주년을 축하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밝고 환함과 따사로운 포근함과 만물의 생장을 도와주는 것이니 소아암NGO한빛이 주님의 은총 속에 모든 환자와 가족에게 참빛을 비추이는 나눔과 사랑의 실천 현장으로 온전히 성장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복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정보지원실  
본부장/  
소아암NGO한빛 이사

15년의 시간 소아청소년암 환자를 위한 시간을 어떻게 담을까요? '아이들은 우리에게 온 귀한 손님처럼 대하라'고 하는데 그 마음처럼 귀한 우리 친구들과 어느새 청소년기가 된 "소아암NGO한빛"은 우리에게 온 소중한 선물이자 저를 뒤돌아 보게 해 준 소중한 인연입니다. 설레임 가득안은 이 마음처럼 "소아암NGO한빛"이 우리 환자와 부모님들에게 언제나 힘이 되고 앞으로도 15년 그 이상 더 잘 유지되어 탄탄한 조직으로 커가기를 기대합니다.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되는 제가 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 기쁜날 축하드립니다.



**최병철**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소아암NGO한빛 이사

창립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늘 그랬듯 한빛가족들의 큰빛이자 편안한 쉼터로서 오래오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김경희**

前 연세세브란스병원  
간호팀장/  
소아암NGO한빛 이사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5년전 한빛사랑나눔터라는 이름의 작은 규모로 시작하여, 어느덧 국내외 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할수 있는 단체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과, 봉사와 기증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늘 응원과 사랑을 듬뿍 주시는 환자와 가족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박홍이**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 /  
소아암NGO한빛 이사

힘든 소아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갈 길을 시작하게 만드신 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이 일의 초석을 놓아 주신 배명자 이사님, 배길선 관리위원장님과 유철주 교수님의 끝없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인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국제회계사연맹(IFAC) 직전회장/  
소아암NGO한빛 이사

창립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처음에 뜻이 있는 몇 분이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덧 많은 이들의 애정과 신뢰를 받는 어엿한 NGO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는 초기 도약 단계를 넘어 계속 공감과 열정으로 사회의 신뢰를 더욱 받으며, 큰 사랑으로 보다 많은 어려운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줄기찬 용기와 넘치는 샘물 같은 희망을 주는 기관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김지중**

(주)제이제이무역 대표/  
소아암NGO한빛 이사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은 소아 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품고 위로하며 희망의 나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전당이 되어 온 누리에 빛이 될 것입니다. 한빛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현숙**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소아암NGO한빛 이사

15주년을 축하합니다. 한빛사랑회에서 시작하여 15년 동안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한결같은 헌신은 많은 분의 사랑과 봉사가 함께 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아암NGO한빛의 여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석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소아암NGO한빛 이사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애쓰는 한빛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15년도 소아암과 싸우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는 한빛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참여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한빛!!



**김선화**

공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소아암NGO한빛 이사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소아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을 더하니 마술이 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소아암NGO한빛은 "사랑"입니다.



**이승환**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  
소아암NGO한빛 이사

한빛의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힘은 보태지 못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소아암NGO한빛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봐왔던 한빛은 백혈병, 소아암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병원관계자 그리고 우리 소아암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한빛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자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배명자**

소아암NGO한빛 이사

작은 소망과 마음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아암NGO한빛의 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유철주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소아암 환자와 소아암NGO한빛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권**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과 교수/  
前 소아암NGO한빛 이사

지금까지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희망과 도움이 되어 왔는데 지난 15년간 정식으로 NGO기관으로 발돋움하여 많은 활동들을 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창기에 벽돌모양의 후원카드를 돌리면서 귀한 음들을 모았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벽돌을 차근 차근 쌓아오신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가 지금의 소아암NGO한빛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 덕분에 소아암NGO한빛이 꾸준히 활동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과 보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여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안전한 기지로써 희망과 한빛을 비쳐주는 기관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한승민**

세브란스병원 소아혈액종양과 교수

소아암으로 치료하는 아이들과 보호자들에게 희망의 동반자가 되어 준 '소아암NGO한빛'의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아이들과 보호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다방면의 지원과 돌봄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오래 건강한 발걸음을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한정우**

세브란스병원 소아혈액종양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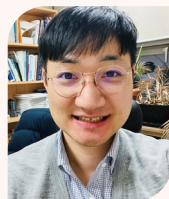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시작한 이 한 길을 걸어 15년이 된 오늘, 감명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자리에서 버팀목이 되어 오신 교수님, 선생님, 여러분들과 변함 없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응원으로 모두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승연**

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지난 15년간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 곁에서 한결같은 사랑과 정성으로 함께 해 온 소아암NGO한빛을 지켜 보고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의 따뜻한 안식처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15주년 축하합니다!



**안원기**

세브란스병원 소아혈액종양과  
진료교수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소아암NGO한빛의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치료과정 속에서 환자들이 정서적, 사회적 단절을 겪지 않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 줄기 빛의 역할로, 또 돕고자 하는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연결해주는 소중한 통로의 역할을 묵묵히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빛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이승연**

연세암병원 소아혈액내과병동  
파트장

이 다양한 활동과 마음 나눔으로 소아환자들의 곁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지켜 온 시간이 흘러 1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누어 온 사랑이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환한 빛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빛이 썩을 틈이 없고 자라 이 오래도록 우리 곁에 함께 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바라며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윤정**

연세암병원 외래간호팀장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빛은 소아암 가족들이 진단에서 치료 종료 후 일상으로의 적응까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걸어 와 주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한빛의 지지는 소아암 가족이 일상으로 스며들게 도와 주었고, 앞으로도 소아암 가족을 위한 희망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박미나**

연세암병원 소아혈액종양과  
전담간호사

소아청소년암 아동과 가족들의 힘든 치료 여정에 언제나 따뜻하게 함께 해 온 소아암NGO한빛의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한빛의 따뜻한 마음이 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장현진**

세브란스병원 응급간호팀 파트장

소아암NGO한빛이 벌써 15주년을 맞이하여 축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습니다. 소아암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손잡아 주는 나무 그늘과 같은 한빛! 우리가 모두 함께여서 환자와 부모님들이 힘을 내어 치료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든든한 힘이 되었음을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세브란스 가까이에서 웃으며 울 수 있는 침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들리고 포근히 안아주는 한빛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한정화**

연세암병원 외래간호팀 간호사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소아암NGO한빛의 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빛과 함께 울고 웃으며 쌓은 많은 시간들이 참 소중한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든든한 '한빛 꿈나무'가 되어 주시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한빛의 든든한 지원군이신 많은 봉사자, 후원자분들의 노력과 사랑,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김선희**  
연세암병원 외래간호팀 간호사

한빛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힘든 여정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면서 앞날을 응원해주는 모습이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느낀 감동처럼 아마 환자와 가족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커다란 위로와 용기를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웃음과 희망, 용기를 선물해 주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최에리**  
소아혈액종양과 임상전담 간호사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마라톤과 같은 투병 생활 속에서 다양한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많은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보호자들의 응원군이 되어 주시며 힘을 내어 끝까지 완주를 향해 달리는데 도움 주시는 소아암NGO한빛의 앞길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배길선**  
소아암NGO한빛 관리위원장

15주년을 축하합니다. 되돌아 보면 오래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그 세월속에서 이만큼 성장해 왔음에 가슴 뿌듯하며 수고하신 일꾼들의 봉사와 기도로 일구어냈기에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소아암 환자가 있는 한 소아암NGO 한빛도 항상 그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송민정**  
소아암NGO한빛 사무국장

소아암 아이들과 가족들 곁에서 소나무 같이 늘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 한 소아암NGO한빛의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 함께 했던 수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우스에서 만났던 아이와 부모님들,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신 후원자분들, 봉사자분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한결 같은 한빛이 되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한상원**  
소아암NGO한빛 간사

15주년이라는 영광스런 순간을 함께 하며 축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환자와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고 힘이 되기 위해 매 순간 진심어린 지원군이 되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분들의 소중한 마음이 값지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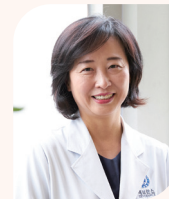
**정향숙**  
한빛사랑회 회장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아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직 환자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통해서 완치되어가는 과정에 하나 하나 정성을 다해 도와주심에 모든 이들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아암 환자들 있는곳에는 언제나 소아암NGO한빛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변은숙**  
前하우스 관리위원/  
세브란스 재활병원 파트장/  
세란병원 간호부장

소아암환자들에게 버팀목이되어준 소아암NGO한빛의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소아암환자와 보호자에게 사랑 실천으로 "희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손선영**  
前세브란스 호스피스팀 간호사/  
강남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누군가의 소중했을 미래를 대신해서 값지게 살아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시작했었던 15년 전의 작은 제 노력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벌써 15주년이라니 감개무량입니다. 저의 경험이 스러지지 않고 이렇게 소아암NGO한빛으로 우뚝 설 수 있게 그동안 애써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아이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김정민**  
판소리 명창

뜻을 함께하는 좋은 분들과 의미 있는 15주년을 축하할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저마다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큰 결실이 되어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다래**  
개그우먼

1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한빛에서 김치도 같이 만들고 부침개도 만들고 성탄절 파티도 함께 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15주년이라니! 그동안 아픈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주신 의료진 그리고 한빛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이세상 모든 아이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화팅!



**하하**  
방송인

15주년 백서 출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세상이 무너지는데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한빛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 모두 모두 존경합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소아암 환자들이 하루 빨리 완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아암NGO한빛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최정윤**  
탤런트

15주년을 기념하는 백서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한빛식구들 의료진들께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의 앞날에 무한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씩씩하게 세상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길 기도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가족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손여은**  
탤런트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의 짧은 인사가 천사같은 환자들과 가족들과 모든 의료진분들께 작지만 조금이나마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들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전영미**  
코미디언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와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 어린이들과 가족분들 많이 지치실 텐데요, 우리 의료진 분들을 믿으시고 끝까지 힘내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환자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의료진 관계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힘내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정형돈**  
개그맨

소아암NGO한빛이 15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아암 환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주시는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15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20주년, 30주년이 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NGO 단체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소아암 환자들의 어려움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과 함께 한 그 15년의 시간이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의료진 여러분들 그리고 소아암으로 고생하는 소아암환자들과 가족분들 모두 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신화 WDJ**  
가수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소아암NGO한빛의 과거가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과 가족 분들께서 우리 한빛과 의료진분들 덕분에 몸도 마음도 잘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20주년, 30주년까지 계속 이어질 소아암NGO한빛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다시 한번 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권순지**  
기린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소아암 환자와 보호자, 완치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롭고 막막한 길에서 집이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선생님이 되어 주시고 추억을 채워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권아진**  
기린아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빛나고 있는 기린아들과 힘든 가운데 빛을 품고 도약을 준비하는 꿈드림이 함께 하며 손잡고 나아갈 수 있음은 소아암NGO한빛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15년을 넘어 150주년에도 건재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힘껏 응원합니다!

**정우영**  
기린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아암NGO한빛이 그래왔듯이, 저 또한 소아암 완치자로서 어려운 환자들과 손을 잡고, 이겨내고 나아가는 그 큰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Y**  
기린아

소아암NGO한빛을 통해 기린아,꿈드림을 처음 만나면서, 힘든 치료 기간동안 저와 가족 모두 완치 후 삶의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완치자인 제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존재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든든한 친구같은 소아암NGO한빛의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유경아**  
기린아

소아암NGO한빛 덕분에 치료 기간 중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과거 행복했던 추억 가운데에 소아암NGO한빛이 있었어요. 제가 힘들 때 빛이 되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빛이 되어준 만큼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다른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빛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치료 받고 회복중인 아이들을 위해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주년 축하드립니다!

**이은희**  
기린아

올해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정식으로 NGO기관으로서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 지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꾸준하고 묵묵한 노력 덕분에 이렇게 오래 활동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항상 뒤에서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아암NGO한빛의 뜻깊은 일에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지애**  
기린아

저는 1999년도에 비호즈킨 병과 싸우고 이겨낸 기린아 이지애 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완치자들의 모임부터 환자들과의 만남까지 감동에 이르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완치자로서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힘들게 병과 싸우고 있는 친구들에서 큰 기쁨을 선물해 주고 싶어요. 굉장히 큰 힘을 써주시는 의료진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인**  
기린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기린아,꿈드림으로 활동하며 그 동안 많은 도움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어려웠던 날이 많았지만, 앞으로 다시 열심히 활동하면서 소아암NGO한빛이 100주년이 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소아암NGO한빛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강나영**  
기린아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소아암 완치자 기린아 강나영입니다. 투병 시절 소아암NGO한빛의 쉼터, 다양한 후원 프로그램 덕분에 현재 이 자리에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소아암NGO한빛의 15주년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꼭 좋게 성장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노형직**  
기린아

20년 전,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난 후 이런 단체가 있는 줄도 몰랐지만, 6년 전에 재발하고 나서야 이런 단체가 있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단체 ! 진심으로 감사하고 15주년을 축하드리며 응원합니다!

**이상호**  
기린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소아암NGO한빛의 과거가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20주년 30주년까지 이어질 소아암NGO한빛의 미래를 응원하며 다시한번 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김재경**  
기린아

15주년을 축하드려요! 지난 15년동안 소아암환자들을 위해 애쓰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소아암환자들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라며 다시한번 축하드려요!

**김영지**  
기린아

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15주년까지 오게 되어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시간과 더욱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항상 응원과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김용현**  
기린아

1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즐겁고 희망 가득한 하루하루를 선물 주시려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 가득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기억될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힘내시고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15주년 축하합니다!

**오해인**  
기린아

소아암NGO한빛 덕분에 제 치료기간이 값진 경험이 되었어요! 쉼터 덕분에 치료할 때마다 먼 지방에 다녀오지 않아도 됐고, 다른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니 서로 의지하며 힘이 됐어요. 틈틈이 진행하는 캠프, 운동회, 연말 파티 덕분에 지루할 수 있던 치료 과정에 즐거운 추억이 쌓였어요! 의료진 선생님들과 함께 하니 든든했고, 다른 환자들과 함께 하니 서로 힘든 부분은 이해하고, 다독이며 즐길 수 있는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완치자와의 만남은 현재 치료 중인 환자나 부모님과 완치자가 만나서 추억과 경험, 소중한 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각자 나름대로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저 자신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아암NGO한빛 15주년 정말 축하하고, 저의 치료 과정을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아암,백혈병 친구들이 덕분에 아름답게 빛나면 좋겠네요. 15주년 축하하고 앞으로도 꼭 함께해요.

**박준영**  
기린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아암NGO한빛은 지난 15년간 '공감'을 통해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완치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은 치료 중인 환자들이 완치 후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여러 문제들을 공감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소아암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의 오해를 풀고 소아암 환자들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공감'은 많은 환자들이 일상 생활로 돌아와 꿈을 좇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고, 완치자가 되어 겪은 경험을 또 다른 환자들에게 나누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15년간 많은 환자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주신 소아암NGO한빛 구성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의 여정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 Lauren

창립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빛이 되어 주시는 감사한 분들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밝고 씩은 행복한 모습으로 곁에 있어주세요.

#### loveatti

소: 소아암과 싸우는

아: 아이들을 위해

암: 암흑을 빛으로 만들어주시는

N: NGO의 모든 가족들

G: Great

O: Only 아이들을 위한

한: 한줄기의 빛!!! 한빛

빛: 빛나주세요 영원히

#### js476021

창립 15주년을 축하해요. 작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저희 아이가 치료를 잘 받은거 같아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 오키

창립 1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소아암 아이들의 아픔과 슬픔에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시고 더불어 완치의 희망까지 어깨동무 해주시는 든든한 내 친구 소아암NGO한빛입니다.

#### 나는나다

4월 16일은 슬픈날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도 있었네요. 소아암NGO한빛 우리 곁으로 와 주어서 고마워요. 코로나로 집에 못 가고, 퇴원 못 하고 그럴 때 쉼터에서 배려해 주셔서 어려웠던 한 달 잘 보냈어요. 그때 소아암NGO한빛이 없었다면 어찌 보냈을까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지켜봐줘서 감사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 보리

창립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 곁에 묵묵히 지켜주셔서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환자와 가족들께 더욱 기대고 싶은 동지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 페파픽

창립 15주년 축하합니다. 아픈 아이들과 우울한 부모들까지도 어루만져주는 큰 뜻과 따뜻함이 큰 힘이됩니다. 덕분에입니다. 감사해요.

#### 황동강동

창립 15주년 진심으로 너무 너무 축하합니다! 한빛은 우리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부모의 마음까지 알아주며 힘주는 대단한 존재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 박새

창립 15주년 축하드립니다! 제가 소아암 경험자로 살아온 지가 약 30년인데 많은 순간에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 기린아, 꿈드림 등과 소아암NGO한빛을 응원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 no9910079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 유별맘

15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존재만으로도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이 곳! 너무 감사했었고,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따뜻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항상 응원해요.

#### 평아핑

15주년 축하드리며 또한 감사드려요. 아픈 아이들을 위해 항상 힘이 되어 주시고 애써 주셔서 늘 감사드려요 20주년, 100주년까지 항상 응원할게요. 파이팅!

## 15주년 축하해요 챌린지

소아암NGO한빛의 설립 1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소아암 환자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15주년 축하해요 챌린지”에 참여해준 작품들입니다.

소아암NGO한빛의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해준 모든 친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 소아암 아이들의 썬샤인 프렌즈가 되어주세요

-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

2004년에 설립된 소아암NGO한빛은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NGO)입니다.

●한빛은 병원 가까이에 한빛하우스와 사랑하우스를 마련하여

소아암 아이들의 통원 치료를 지원합니다.

●한빛은 치료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소아암 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한빛은 학습지도가 필요한 소아암 아이들에게 학습봉사자를

1:1로 연계하여 교육 및 멘토링 활동을 지원합니다.

●한빛은 소아암 가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미술치료, 나들이프로그램,

여름캠프, 가족운동회, 송년잔치 등의

정서적인 지원도 함께 합니다.

## 회원 형태

개인후원자	매달 CMS 및 계좌이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단체후원자	매달 혹은 일시적으로 단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물품후원자	한빛사랑하우스에 필요한 물품, 식재료, 생필품 등을 후원해 주시는 분

## 후원 방법

### ① CMS 납부

홈페이지 가입	메인페이지 [후원하기] 혹은 [후원현황→후원신청→정기후원] 입력후 저장
후원신청서 작성	소식지내 [CMS 후원신청서] 작성 후 FAX, E-mail, 우편으로 발송
전화 가입	소아암NGO한빛 사무국으로 전화하여 가입신청을 요청

### ② 계좌이체 납부

은행 계좌이체는 본인이 직접 거래 은행의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아래의 계좌로 후원금 입금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안내	우리은행 1006-001-303251 한빛사랑후원회
--------	------------------------------

### ③ 물품후원

한빛사랑하우스에 후원하고자 하는 물품을 직접 하단의 하우스 주소로 보내주세요.

소아암NGO한빛

주 소 : (03782)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11길 55 (창천동 53-60) 2층

연락처 : Tel : 02-3142-0675 / Fax : 02-3142-0670 / E-mail : hanbit\_2004@naver.com

※ '썬샤인 프렌즈'는 소아암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빛의 후원자입니다.



정회원

썬샤인 프렌즈

## 정기후원(CMS) 신청서

### ■ 회원 정보

회원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단체)	
성명		직장 (소속)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 후원 금액

월 정기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50,000원 <input type="checkbox"/> 3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CMS자동이체 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수집 및 이용목적 : 효성 CMS 자동이체를 통한 후원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효성CMS, 금융기관, 통신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고객센터 운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되며 후원자정보는 공익을 위해 타 NPO단체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내용(약관)에 동의하며,  
소아암NGO한빛의 정기후원(CMS출금이체)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포토에세이

“소아암NGO한빛 설립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소아암가족들의  
튼튼한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